

자궁경부암 백신 13~15세 효과적... 45세 이전 꼭 접종을

건강 바로 알기 자궁경부암

김석모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평생 동안 10명 중 8명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면역기능에 의해 자연이 치유되고 자연 치유되지 않은 약 10% 정도만이 지속적 감염이 세포 변화를 초래해 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게 된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특히 16형과 18형 바이러스가 전체 자궁경부암의 70%를 차지하고 그 외 31, 33, 45, 52, 58형 등을 합치면 90%를 차지한다. 특히 사춘기(16세 이전)의 조기 성경험자, 성교 대상자가 많은 여성, 아이를 많이 낳은 경험 등이 발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만이나 장기간 경구피임약 복용이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발병률 증가세= 국가암 등록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10.7명이다. 국내 여성 암

발생률 10만 명 당 10.7명... 매년 4000명 정도 발병
백신 부작용 걱정할 필요 없어... 절제된 성생활이 중요

순위에서는 7위이며 부인과 암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과거에 비해 자궁경부암은 감소추세이며 매년 4000명 정도가 발병하고 900명 정도가 사망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10대에 성관계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궁경부의 세포가 외번되고 미성숙된 10대 초중반 경우 성관계는 쉽게 경부에 상처가 나고 이곳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이뤄진다. 또한 음식의 서구화로 인한 비만과 호르몬 복용 등이 선암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자궁경부암 증상은 성관계 후 출혈이 가장 흔하며 생리가 아닌데 나오는 부정출혈, 질분비물에서 출혈 및 악취가 나거나 더욱 심해진 경우 인파부종으로 인해 한쪽 다리가 붓거나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초기인 경우는 자각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자궁경부암 백신)= 성관계를 하지 않아 바이러스 감염확률이 매우 낮은 나이에 백신을 맞는 경우는 백신에 포함된 유형의 바이러스에 의한 암을 100%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백신은 암의 70%를 예방하는 16, 18형을 예방하는 백신(2가, 4가 백신)과 90%를 예방하는

16, 18, 31, 33, 45, 52, 58형을 예방하는 백신(9가 백신)이 개발돼 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만 12살~13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2회 무료접종(2가, 4가 백신만 해당)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1차 접종한 2004년생의 경우 올해 2차 무료접종을 할 수 있다. 예방 백신은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추가 접종만 하면 된다.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접종부위의 부종, 발적, 통증 등 국소적 증상이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신경계 합병증 같은 부작용 보고는 없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 투여는 가급적 성관계를 하기 전 나이인 13~15세 사이에 접종받기를 학회에서는 권장하지만 45세까지도 임상시험에서는 약 90%의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성생활이 활발한 30~40대에서도 현재 16, 18형 모두에 감염돼 있을 확률은 0.1%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도 백신 투여를 통해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 백신은 13~15세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후 45세 까지도 효과가 뛰어난 만큼 반드시 접종받는 것이 좋다. <전남대병원 제공>

문이다. 더불어 절제된 성생활과 콘돔 사용이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다른 성병 및 AIDS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전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건전한 성생활 및 정기적 산부인과 검진이 제일 중요한 수칙이다. 또한 적절한

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은 암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생리,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설명회



조선대학교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단(총괄책임자 조선대병원 고재용 교수)은 최근 조선대병원 하중현홀에서 조선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광주보건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향후 협약 추진을 위한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협약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는 사업 및 협약 절차에 대한 기업 이해를 돕고 다양한 기업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향후 일정 안내와 협약 절차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고재용 교수는 각 기관, 기업의 실무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일치단결하여 추후 진행될 협약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안과광학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80억원(국비 80억, 광주시 80억, 민자 20억)이 투입되어 국내 안과광학 의료기기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학연병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안과, 스마일수술 3만례 인증

호남지역 안과 중 최초 독일 칼자이스사 인증서 전달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가 호남지역 최초로 스마일수술 3만례를 기록했다.

5일 스마일 수술을 개발한 독일 칼자이스사에 따르면 신세계안과는 지난 2013년 스마일 수술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3만례 수술을 기록했다. 이로써 신세계안과는 호남지역 안과 중 스마일 수술을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한 안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스마일 수술은 각막을 절개하는 부분이 라식 수술보다 현격히 줄어 안구건조증이 적고,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아 외부 충격에도 강한 장점이 있다. 특히 각막손상이 적고,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어 가장 많이 찾는 시력교정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안과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 칼자이스사에서 'LEADING SMILE CENTER' 감사



패를 받았으며,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 상을 받기도 했다.

또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1000건 이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리사트리(Lisa tri) 렌즈' 시술을 기록해 칼자이스사에서 공식인증을 받기도 했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해주는 노안수술 렌즈인 리사트리는 노후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할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원거리·중간거리·근거리 시력을 한꺼번에 교정해준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스마일 수술은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 수술을 해야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안과 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전국 최고의 스마일 수술 대표안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완벽한 수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

기생충관리 및 건강관리 분야 총 5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2020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학술연구지원 공모는 기생충관리 및 건강관리 분야로 총 5편의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연구지원자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제출공문과 함께 연구 제안서 및 계획서 각 1부를 건협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보건·의학분야 연구 관련 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면 참여 가능하다.

기생충관리 분야는 건협의 기생충관리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어야 하며, 건강관리(건강검진 및 건강증진)분야는 "자유주제"와 "지정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건강관리 분야의 자유주제는 건협과 같은 건강검진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보건·의료 전 분야와 관련한 연구내용이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지정주제는 노인 특화 건강검진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건협 내부 위원회인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연구비는 작년 공모(1억원 지원)보다 지원을 확대, 편당 2000만원~3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총 5편)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협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건협 건강증진연구소로 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